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6차 세션, 바울의 하나님 형상 회복, 에베소서 4:22-24

© 2024 로버트 피터슨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바울의 회복, 에베소서 4:22-24입니다.

우리는 인류학, 특히 신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형상 회복 교리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9, 10을 공부했고, 지식과 관련된 형상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22~24로 가서 형상이 거룩함과 의로움의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문맥은 에베소서 4:17-19입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증거하노니, ESV,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허무함 가운데 행하는 것같이 더 이상 행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느니라.

그들은 냉담해져서 음란함에 자신을 내어주고, 온갖 부정을 행하는 데 탐욕스러워졌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17~19절). 흥미롭게도, 골로새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신자들은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20, 21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운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에 대해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처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22~24절에서 세 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여 옛 최악스러운 삶의 방식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부정사는 실체적, 즉 당신이 배운 것에 대한 복합 직접 목적어로 기능하거나, 인식론적, 보완적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Zerwick , NCB의 Milton, NICNT의 Bruce와 마찬가지로 후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 골로새서 3:9, 10과 에베소서 4:22~24는 Herman Ridderbos 가 지시법과 명령법을 구분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Ridderbos 의 책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253~258, 270, 271쪽을 참조하세요.

또한 , 빌립보서 2:12과 13을 보십시오. 이전 구절인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22-24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합니다 .

그는 말하자면 지시적 방식으로 말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권고는 지시적 근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적입니다. 그것은 명령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쁨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빛 속에서 살면서 빛 속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4, 22, 20.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들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4:23, ah, 22.

벗어버리기 위해, 이전의 행동에 따라, 옛 사람은 속임수의 욕망에 따라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 다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그것은 하나님에 따라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매우 문자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 4:22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옷을 벗으라, 옛 사람인 여러분의 이전 생활 방식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의 기만적인 욕망에 따라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적 소유격, 소위 히브리 소유격으로서의 맛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최악스러운 기독교 이전의 생활양식과 그 기만적인 욕망을 제거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태도에서 새롭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정신적 태도를 새롭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재 부정사인 다른 사람들은 상속녀이며, 점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에베소서 4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정사는 24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Aletheos 는 또 다른 질적 소유격입니다. 따라서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대신 형용사로 만들어 보세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2:10, 2:15, 골로새서 3:10, 고린도후서 5:17, 갈라디아서 6:15 를 비교해보세요. 이 새로운 창조 모티브는 곳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10, 은혜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할 만한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의 작품이니라.

창조를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영적 창조 모티브는 우리가 방금 고린도후서 5:17과 갈라디아서 6:15에서 살펴본 골로새서 3:1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물론 개별적인 적용이 있는 기업적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미국식 안경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경향에 주의하세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기업 서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진실하게, 그것은 물론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창조된 새 사람.

골로새서 3:10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른 새 사람과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24에서 *imago dei*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구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3:10과 밀접한 평행을 이룹니다. 둘째, 두 구절 모두에서 새로운 창조를 언급하기 위해 *I create(katizo)*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다는 문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칠십인역의 창세기 1:27과 에베소서 4:24의 골로새서 3:10의 유사점에 주목하세요. CL 미튼은 동의합니다. New Century Bible은 에베소서에 대한 그의 주석입니다. 미튼은 동의합니다. 인용문, 에베소서의 문구는 골로새서 3:10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미는 동일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인용문 닫기. 브루스는 인용문, 하나님에 따른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뜻이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저는 에베소서 4:24와 골로새서 3:10이 같은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 형상에 따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 에베소서 4:24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인간의 회복에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 포함되므로, 본래의 *imago Dei*는 반드시 그것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의 도덕적 측면을 배웁니다. 아담은 만들어졌고, 이브는 본래의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창세기와 일치합니다. 거룩한 존재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된다는 바울의 교리를 연구했습니다.

골로새서 3:9과 10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데 쏟혀지고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4:22-24에서 형상의 갱신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갱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추론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갱신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래 이미지는 동일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역사적 신학에 비추어 요약하고 체계화로 이어지려면 지식과 의로움, 거룩함의 이러한 갱신은 이미지에 대한 실질적 또는 구조적 관점의 측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구성으로 창조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평생 그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창세기 1장의 이미지에 대한 사실, 즉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 크게 무시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강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4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적 설교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고린도후서 4:4. 그의 반대자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 서신에서 확실히 분명합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바울, 당신은 거짓이고, 당신은 컬트이고, 당신은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복음이 매우 빛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고, 당신의 메시지는 거짓이며,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불쌍한 바울은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 고린도 서신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합니다. 그는 타격을 받지만, 그는 복음이 진흙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1-6은 우리의 주의를 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문맥에 두는 것은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빛났을 때, 그는 베일을 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말했듯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실질적이었지만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동양적 비교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영광은 훨씬 더 큼니다.

그것은 그 영광을 가린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1,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그의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끄럽고 음흉한 길을 버렸노라.

우리는 그의 적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활함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이 가려져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종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 마음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글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적 설교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다룬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말씀의 선포에서 죄인들에게 비추는 것에 대해 말한다. 복음의 주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죄인들을 비추어 재창조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십니다. 아, 이 구절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끔찍한 곤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강한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멀게 했고, 목적 구절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빛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백성의 마음에 그의 빛이 비추게 하였고, 그는 강한 사람인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눈멀음을 이기시고,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와 사탄의 눈멀음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적 빛을 주시도록 허락하시고, 신성한 조명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재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압도하는 빛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효과적인 조명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이 있으며,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취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목적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들이 왕국에 합류하여 이 위대한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15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위와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와 같은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그는 시작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가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이었요,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음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창조물보다 모든 것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창조물을 유지하는 섭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상속자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의 주님이며, 따라서 그 영역에서 탁월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 말하는 재창조에서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15에서 창조의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그는 신의 형상입니다. 저는 테니스 그림을 쓸 생각이 없었지만,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아내는 친절한 식당에서 친절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너무 친절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제 아내 메리 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실 것이고, 그녀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웃으실 겁니다... 그녀는 제가 뉴저지 매디슨에 있는 드류 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을 공부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실버 달러 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상관이 비밀리에 다른 매장을 방문했고, 특이한 서비스를 보면 실버 달러 상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녀가 상을 받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한 다른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제 아내의 페르소나 전체는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랜디라는 젊은이와 함께 일했는데, 그는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게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저와 놀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유대인이었고, 저는 그와 테니스를 치고 심지어 그의 스트로크를 조금

도와주고 그가 저와 함께 마가 복음을 읽는다면 전략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고, 저는 그가 놀랍게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크의 4~5장 정도였고, 우리는 시간 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구절을 읽고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테니스를 쳤습니다. 내가 그를 이기는 한, 그는 어쨌든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내가 친절한 식당에서 그와 접촉한 데서 비롯된 좋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잠깐만요, 그가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크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신이 이 세상에서 행동하신다면 무엇을 하실지 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가 한 일을 해야 하고, 예수가 한 일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 통찰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쇠퇴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잊기도 했어요. 그의 친구가 되고 테니스를 치는 건 축복이었어요.

오, 주님께서 그의 삶에서 일하시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15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태어난 자는 가장 높은 자,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또는 때문에, 는 접속사, 모든 것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셨기 때문에 창조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 태어난 자의 사용은 야곱이 둘째였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되었고,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 상속권을 얻었으며, 시편 89편에서 메시아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그를 내 먼저 태어난 자로 삼았으니,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4과 골로새서 1:15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두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확하게 부르지 않고 구주를 신자들이 따라야 할 형상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8:29에서 바울은 구원의 목표를 신자들의 영광화, 또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르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8:28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그는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그는 29절에서 건너뛰어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그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다음 두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장 큰 유익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과거 시제 동사 5개와 아오리스트 동사 5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정당화하시고,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잠깐만요, 영광은 미래라고 말합니다. 사실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단순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백성의 완강함, 죄, 투쟁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최후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것입니다.

성경적 균형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 다섯 가지 동사 때문에 한 섹션을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내가 미리 사랑받고, 예정되었으며, 구원을 위해 미리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소환되었으며,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그의 신성한 하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며, 영광을 얻었으니, 즉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울이 확장한 것은 두 번째 구절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 그는 또한 예정하셨고, 여기서 바울은 확대하여, 그는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이는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29에서 바울은 구원의 목표를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순응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탁월한 아들이며, 대문자 S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론적으로 그에게 순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이며, 대문자 B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가족적 유사성으로 그들은 영광 안에서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은 그 개념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미지라는 단어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본성상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형상에 따라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재창조의 맥락에서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49에서 믿는 사람들이 필멸의 상태에서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불멸의 상태에서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45절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첫 번째 강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건가요? 부활 장에서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성령과 동일시되어 경제적으로 볼 때 성령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먼지 같은 것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왔습니다. 먼지로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 신성한 아들입니다. 성육신에서, 흙의 사람이 그랬듯이, 흙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돌아오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9에서 바울은 재창조의 맥락에서 믿는 이들이 불멸과 생명과 부활 속에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그들이 필멸과 죽음과 죄 속에서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리 구원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일치입니다. 이 네 구절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인류학적 생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공부한 처음 두 구절인 고린도후서 4:4과 골로새서 1:15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합니다(고린도후서 4장). 그는 성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골로새서 1:15).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예입니다.

그는 명사에서 동사로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꾸면서, 인간의 육체로 신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의 이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복음서에서 예수의 삶에 대해 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미지로 제시하는 다른 두 바울 구절인 로마서 8:29과 고린도전서 15:49는 인간 속에서 신의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추가적인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남자와 여자가 따라야 할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아들의 영광을 나눌 것입니다(로마서 8:29). 아담의 형상을 지닌 자들은 불멸을 입었을 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9.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고린도후서 4장, 골로새서 1장)이자 종말론적 목표(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은퇴한 로버트 C. 뉴먼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6차 세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바울, 에베소서 4:22-24입니다.